

##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석유개발과 환경사회운동\*,\*\*

김기현  
단독/선문대학교

Kim, Ki-Hyun (2011), La explotación del petróleo y los movimientos eco-sociales en la región amazónica de Perú y Ecuador.

**Abstract** La región amazónica de Perú y Ecuador tiene abundantes recursos naturales, incluyendo petróleo y gas natural. Recientemente la explotación de esos recursos ha provocado varios conflictos sociales, pues la cual amenaza a los indígenas, quienes allí han llevado su vida aislada desde miles años antes. Mientras los conflictos se refuerzan en los territorios indígenas, surgen nuevas formas de resistencia, relacionada con los problemas ecológicos. Este ensayo primero describe la situación actual de la explotación, luego revisa la extensión del deterioro del medio ambiente y de la vida indígena. Y, últimamente, analiza las nuevas formas de resistencia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esta región.

**Key words** Amazonas, Perú, Ecuador, medio ambiente, conflicto social  
아마존, 페루, 에콰도르, 환경, 사회갈등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본 논문은 2010년 12월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계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I. 서론

최근 에콰도르, 페루와 같은 아마존 서부 지역 국가들의 사회 갈등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은 이들의 대부분이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크게 보아 천연자원의 국가 통제를 둘러싼 갈등과 천연자원 개발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그로 인한 원주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인한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모두 중요한 문제이고 서로 연결된 측면도 없진 않지만 이 글에서는 후자인 석유와 환경문제<sup>1)</sup>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는 광산업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안데스 국가들에서 그의 개방과 개발을 보다 더 확대했다. 그러한 과정은 이 지역 광산업의 종속이라는 문제도 다시 야기했지만, 동시에 환경파괴와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붕괴라는 문제도 발생시켰다. 특히 석유산업의 개발은 삼림파괴와 같은 자원고갈과, 대기오염, 원유유출, 수질오염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했으며, 특히 아마존 지역에서는 그에 거주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존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이들 국가의 석유산업과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심지어 중앙정부의 통치성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석유산업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아마존 서부 지역<sup>2)</sup>은 아마존 지역 중에서도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

- 
- 1) 환경(environment)이란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며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어떤 지역 안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군과 이것들을 제어하는 무기적 환경요인이 종합된 복합체계인 생태계(ecosystem)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결국 환경문제는 단순한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다(전경수 1997).
  - 2) 아마존 서부 지역은 크게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동부 지역과 볼리비아의 북부 지역 그리고 브라질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에콰도르와 페루의 사례만을 다루고자 한다.

라, 수천 년 이상 외부인과 거의 접촉 없이 자발적 고립 상태를 유지해온 다양한 종족의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브라질의 아마존 동부지역과는 달리 대부분이 거의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지하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자원이 아직도 거의 개발되지 않은 채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유가를 비롯한 자원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이 지역에도 전례 없는 탐사와 개발의 붐이 일어났고, 이는 환경문제나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 문제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심화되었다.

사실 안데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환경이 주가 되는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발전, 민주화 등 보다 더 절박한 문제들에 밀려 부차적 이슈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보전 차원을 벗어나 생태적 파괴와 빈곤층(특히 원주민)의 다수가 겪고 있는 일상의 사회적 부정의와 연결됨으로써 보다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했다. 석유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 관련 사회갈등은 최근 아마존 유역국가 정치 변동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환경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운동은 원주민 종족성 운동, 여성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에 비해 덜 주목받은 것이 사실이다. 아마존 지역에서 원주민 운동은 최근 환경관련 갈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종족성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Maybury-Lewis 2002; Langer and Muñoz 2003; Postero and Zamosc 2004).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에콰도르 사회과학대학(FLACSO)의 연구교수인 기야우메 폰타이네(Guillaume Fontaine)는 “아마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로 인한 갈등들(Conflictos por petróleo y gas natural en la Amazonía)”이라는 주제로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모아 Íconos(2005a) 잡지에 기획 출판

했다. 그는 소개 글을 통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아마존 지역에 걸쳐있는 나라들에서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이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의 환경갈등이 사회적 위기로 전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리바스 톨레도(Rivas Toledo 2005)는 아마존에서 사회갈등의 원천이 국민의 소유인 자원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사용되기보다 권력자들의 후원주의적(clientelares) 정책들만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의 친환경적, 평등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사회의 조직화와 감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그리너(Greene 2006)는 서구 학자로서는 드물게 일찍이 페루의 안데스와 아마존에서 환경과 종족성을 합한 성격의 사회운동(eco-ethno alliance)이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의 NACLA Report on the Americas도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버빙톤(Bebbington 2009)은 「새로운 채굴: 안데스의 정치생태학을 다시 쓰면서(The New Extraction: Rewriting the Political Ecology of the Andes)」라는 글에서 이 지역의 환경관련 사회운동을 5가지 성격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협상되고 또 나아가 제도개혁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분석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아마존 지역의 환경갈등과 관련한 개별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몬헤(Monge *et al.* 2008) 등은 페루의 사회적 갈등에서 1950-60년대에는 토지집중의 문제가, 1980-90년대에는 좌파 게릴라들에 의한 내전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광물자원 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갈등이 그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준다. 그리고 갈등의 본질 즉 운동의 주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개발의 완전 중단도 현재 방식의 개발도 아닌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임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슈트게이트(Southgate *et al.* 2009) 등은 에콰도르에서 환경갈등이 발

생하는 근본 요인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계 기업들과 그들의 석유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가 통합정책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외국계 회사를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에콰도르 정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너(Finer *et al.* 2008) 등은 아마존 서부지역에서 자원의 개발이 원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아마존 지역에서 자원개발이 원주민 삶의 파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글은 페루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새로운 성격에 대한 앞선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를 위해 우선 이 지역에서 석유산업의 개발이 어떤 형태의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또 나아가 원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로 인한 페루와 에콰도르 사회운동의 성격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종족성에 집중했던 원주민 운동이 환경운동과 결합해 새로운 성격의 운동으로 재탄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드러나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환경사회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확인한다.

## II.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의 석유와 가스개발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석유 탐사는 이미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지역에서는 많은 대형 석유개발 프로젝트들이 실현되었는데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몇 개 석유 개발 프로젝트와 최근 페루 아마존 지역의 카미세아(Camisea)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규모와 강도는

〈표 II-1〉 아마존 서부 지역 국가들의 비재생에너지 공급

(단위: 석유 환산 천 배럴)

국가	2001	2008	증감률(%)
에콰도르	50,897.9	73,388.7	44
페루	59,434.7	88,781.0	49

자료: CEPAL 2009, 204

2000년대에 들어 보다 급속히 증가했다.

관련하여 아래 <표 II-1>은 페루와 에콰도르의 비재생에너지 공급이 2000년대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비재생에너지 공급(그 대부분은 탄화수소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이며, 개발 지역은 아마존이다.)<sup>3)</sup>은 2000년대에 들어 거의 40% 이상 증가했다. 석유공급만 보더라도 에콰도르는 2001년에서 2008년 사이 4,691만에서 6,576만으로, 페루는 같은 기간 4,847만에서 6,932만으로 각각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들어 이들 국가의 아마존지역에서 탄화수소 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PAL 2008, 325).

아마존지역 개발을 위해 이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소통 없이<sup>4)</sup> 임의로 개발을 위한 구획인 구역으로 나누고, 그를 국영이나 다국적 석유회사들에 탐사와 개발과 생산을 위해 임대해 준다. 그에 따라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을 위해 임대되었거나, 개발 협상 중에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만이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된 지역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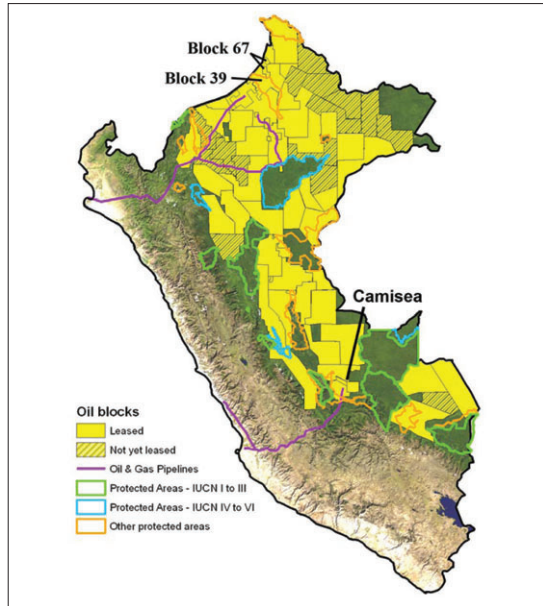
- 3) CEPAL(2009)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재생에너지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탄화수소 에너지와 원자력, 펄나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원자력, 펄나무, 석탄 등의 생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비재생에너지 공급의 증가는 대부분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의 증가와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4) 원주민의 전통적 토지 소유권의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지하자원의 헌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특히 페루는 아마존지역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 로열티를 감소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후 탐사와 개발의 붐이 일어났고, 그러한 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서만 현재 48개의 블록이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 하에 있다. 이들 중 2004-2007년 4년 동안에만 자그마치 40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정부 산하 석유 및 가스 광구 분양 기관인 Perupetro는 25개의 탐사 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들 73개의 블록은 페루 아마존 지역의 75%를 차지하게 되었다(Hance 2010).

페루는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넓은 열대밀림지역을 보유한 나라이다. 또한 브라질 다음으로 넓은 아마존 지역을 가지고 있다.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는 약 60개의 원주민 종족들이 거주한다. 이들 중 14-15개의 종족은 자발적 고립 상태에 있다(Defensoría del Pueblo 2006, 108). 페루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자발적 고립 상태에 있는 원주민 종족 그룹의 수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자발적 고립상태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은 페루 전체 아마존의 3.6%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토지소유권을 가진 원주민 공동체가 차지하는 구역(Communal Reserves)은 페루 전체 아마존의 약 13.5%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역들을 자연보전지역(Reserved Zones)과 합하면 페루 전체 아마존의 약 35.2%에 달한다(IBC 2009).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탄화수소의 개발과 탐사는 페루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단지 국립공원과 역사적 성역들만이 석유와 가스 개발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은 페루 아마존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Benavides 2009).

페루의 아마존지역에서는 최근 새로운 석유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양허권 지역도 전례 없이 확대되었다. <그림 II-1>에서 보듯이 2008년 페루 아마존지역의 84%가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되었거나 혹은 기술적 평가 단계 아니면 계약 협상 단계에 있다. 페루 아마존지역의 41.2%에는 이미 양허권이 주어졌다. 심지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접촉이 없고, 외부의 접근에 취약한 지역에까지 석유와 가스 양허권이 주어졌다. 따라서 양허권 지역은 자발적 고립 상태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의 17.1%와 겹치고,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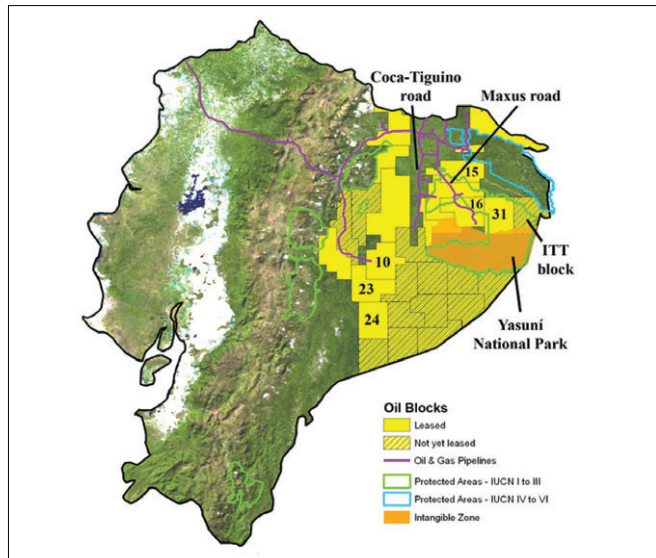
〈그림 II-1〉 페루 아마존 지역 개발지도

자료: *Finer et al.* 2008, 4

주민 공동체 소유 토지 구역 (Communal Reserves)의 55.2%와 중복되며, 환경 보호구역(Reserved Zones)의 60.9%와도 겹쳐진다(Otra-Martínez and Finer 2010, 208-210). 이를 구역을 수로 살펴보면 전체 73개 개발구역 중 최소 58개는 원주민 공동체 소유의 토지와 서로 겹친다. 게다가 17개 구역은 자발적 고립 상태에 있는 원주민 그룹 보호지역과도 서로 중복된다(Finer *et al.* 2008, 2).

게다가 에콰도르와 국경지역인 페루 북부 아마존에서 최근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약 5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경 지역의 67구역과 39구역에서는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시작된 페루 남부 지역 아마존에 위치한 카미세아 가스개발도 많은 환경적 문제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2008년에 이 지역에 새로운 가스 매장이 알려짐에 따라 카미세아의 인정된 매장량은 15조 세제곱피터에 달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4-2007년





〈그림 II-2〉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개발지도

자료: *Finer et al.* 2008, 5

에 허가된 40개의 구역들이 현지에서 개발을 시작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탐사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한 해에만 정부는 탐사공 시추와 지진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10개 구역의 환경영향 평가를 허용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도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내 아마존 지역의 65%인 52,300km<sup>2</sup>를 석유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구역들은 10개의 원주민 거주지역과 중복된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 개발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석유개발이 <그림 II-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에콰도르 아마존의 북부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따라서 <그림 II-2>에서 검게 나타나는 중심부의 야수니 국립공원(에콰도르의 가장 중요한 아마존 국립공원이다. 그러나 그 지하에 에콰도르의 개발되지 않은 석유의 4분의 1이 매장되어 있다.)을 점차 위협하고 있다.

페루와 달리 에콰도르는 국립공원에서 석유와 가스의 채굴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1월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야수니 국립공원 7,580km<sup>2</sup> 지역을 석유, 가스, 벌목을 금지하는 ‘손댈 수 없는 지역(Zona Intangible)’으로 선언했다.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 자발적 고립 상태에서 살아가는 잘 알려진 두 원주민 그룹인 타가에리(Tagaeeri)와 타로메나네(Taromenane)의 거주지가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야수니 남서쪽의 이미 임대된 23구역과 24구역의 개발도 이미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한편 이 두 구역 동쪽, 그러니까 에콰도르 아마존의 남동쪽 즉 야수니 국립공원의 남서쪽 지역 전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다국적 기업들에게 개발권이 양도되지는 않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개발이 시작된 야수니 국립공원 북쪽의 15구역, 16구역, 31구역은 야수니 지역의 원시림 속으로 새로운 접근로를 건설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보호와 원주민들의 삶 보호를 위한 저항에 직면하여 에콰도르 제헌의회는 2008년 국가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청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구역에서 개발을 금지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180개의 석유와 가스 개발구역에는 나무와 곤충 그리고 양서류의 종 다양성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양서류에 대한 위협은 매우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양서류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멸종위기에 직면한 종들이 많은데 그들 중 상당수가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콰도르에서는 많은 개발 구역들이 국립공원과 같은 지역들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페루에서는 비록 국립공원은 법에 따라 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없지만 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구역들은 개발지역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심지어 석유와 가스 개발구역의 상당부분이 자발적 고립 상태에서 살아가는 원주민 거주지역과도 서로 겹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개발의 규모와 강도가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페루 아마존의 73개 블록 중 8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2004년 이후에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미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을 끼친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의 석유와 가스 개발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면 이 지역의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 III.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환경 위협은 크게 보면 오염과 자원고갈로 나누어진다. 오염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문제를 들 수 있고, 자원고갈 위협 사례로는 물 부족 사태, 토양의 퇴화와 사막화, 삼림파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유전자 변형 작물의 문제도 환경문제의 중요한 이슈이다(앤서니 기든스 2003, 532-562).

이중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 위협으로는 멕시코시티와 산티아고데칠레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 에콰도르와 우루과이의 수질오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과나후아토 주, 소노라 주의 물 부족, 멕시코 최대 호수인 과달라하라 차팔라호수의 수량 감소, 아마존 열대우림과 아이티의 삼림 파괴, 브라질 북동부와 멕시코 중북부의 사막화, 그리고 안데스 빙하의 감소 등이 있다(레스터 브라운 2008).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환경 위협 사례들 중에서 석유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수질오염과 아마존의 삼림파괴이다. 아마존워치(Amazon Watch)에 의해 대표적 오염 사례 혹은 관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에콰도르에서는 북동부 아마존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지역의 석유개발로 인한 수질오염,<sup>5)</sup> 아마존의 중질유를 태평양 연안까지 나르는 북부 지역의 OCP(Oleoducto de Crudos Pesados: 중질유 송유관)프로젝트,<sup>6)</sup> 남동부 아마존 지역의 ConocoPhillips 석유개발 프로젝트(ConocoPhillips Oil Projects)<sup>7)</sup>

5) 이것은 소위 쉘브론 케이스(Chevron case)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텍사코(Texaco)이지만 텍사코가 쉘브론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 소송은 쉘브론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1990년 텍사코는 이 지역의 개발권을 국영석유회사인 Petroecuador에 양도했다. 쉘브론 케이스는 에콰도르를 넘어 아마존 서부 지역 환경 갈등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가 있고, 페루에서는 남동부 아마존 지역의 카미세아 가스전과 그를 태평양 연안으로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의 카미세아 천연가스 프로젝트 (Camisea Natural Gas Project)<sup>8)</sup>와 페루 북부 아마존 지역 블록 1AB의 석유생산으로 인한 수질오염<sup>9)</sup> 사례가 있다.

- 6) 300마일에 걸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10개 이상의 원주민 거주 지역을 통과한다. 그러나 그 보다 심각한 것은 송유관의 규모로서 그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마존에서 현재의 석유생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참여자는 캐나다의 EnCana(지분 31.4%)와 스페인의 Repsol-YPF(지분 25.6%), 아르헨티나의 Pecom Energia(지분 15%), 미국의 Occidental Petroleum(지분 12.2%) 등이다.
- 7) 블록 23, 24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천 년 이상 이곳에 거주해 온 슈아르(Shuar), 아츄아르(Achuar), 키추아(Kichwa)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종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2005년 원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대통령을 사임시킬 정도로 개발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이 지역의 개발은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다. 현재 미국의 ConocoPhillips 사가 개발 양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블록은 따라서 에콰도르에서 가장 사회적 갈등이 심한 지역이다.
- 8) 16억불 투자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가스 생산에는 아르헨티나의 Pluspetrol(36%),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연결된 Hunt Oil(36%), 한국의 SK Corporation(18%)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아르헨티나의 Techint(23%)와 Pluspetrol, Hunt Oil, SK Corporation 등이 페루 가스 운송(Transportadora de Gas del Perú: TGP)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스전이 위치한 우루밤바강 하류 지역은 지금까지 외지인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곳으로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세계에서 거의 비교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생물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역시 외부와의 접촉이 없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에 35억불을 투자하려고 했던 Royal Dutch Shell의 계약은 구체화 되지 않았고, 결국 TGP와의 계약은 16억불로 결정되었다. 양 계약 간의 이러한 20억불의 차이는 이 프로젝트의 환경, 원주민 혹은 지역 주민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한 비용이 수익성의 평가에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자본을 댄 국제금융기구들의 감시와 통제의 비효율성, 기금 사용의 비 적절성, 배상 및 보상의 일방적 진행 등의 문제로 인해 환경문제와 원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Soria 2005, 48-51). 따라서 카미세아 가스전과 파이프라인 건설은 현재 아마존 서부 지역에서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 9) 페루 북부 아마존 지역은 1970년대부터 미국의 Occidental사에 의해 석유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석유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형성수와 다른 독성 산업 폐수들이 하천을 오염시킴에 따라 그곳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수질오염 사례는 페루 국영석유회사인 Petroperu가 개발한 인근의 8블록과 8X블록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질 오염은 1996년에 8블록과 8X블록을, 2000년에는 1AB블록을 인수한 아르헨티나의 Pluspetrol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그러나 Pluspetrol은 그들의 전임자들에 의해 발생된 수질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보상도 거부하고 있다. Pluspetrol은 카미세아

〈표 III-1〉 아마존 서부 지역 3국의 삼림파괴

국 가	숲 면적(천 헥타르)		전체에서 삼림이 차지하는 면적(%)		삼림 면적의 증감율(%)
	1990	2005	1990	2005	1990-2005
에콰도르	13,817.0	10,853.0	49.9	39.2	-21.5
페루	70,156.0	68,742.0	54.8	53.7	-2.0

자료: CEPAL 2009, 193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접근도로, 시추 플랫폼,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삼림을 파괴하고, 또 탐사와 생산 그리고 운송 중에 발생하는 석유 및 폐수의 유출은 수질을 오염시킨다. 뿐만 아니라 석유 개발로 인한 간접적 효과도 결코 적지 않다. 석유생산을 위한 접근도로와 송유관의 건설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원시림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벌목이나 사냥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이주자들의 정착지 건설과 농목축업의 발전으로 삼림이 파괴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아마존 북부와 중부의 광범위한 삼림파괴는 주로 석유 접근로를 따른 새로운 이주 정착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했다.

석유개발의 직간접적 효과로 인한 아마존 서부 지역 3국의 삼림파괴의 결과는 아래의 <표 III-1>와 같다. 1990-2005년 사이 페루의 삼림 비중은 2.0% 감소함으로써 이때까지는 그다지 삼림파괴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다면, 에콰도르의 경우는 자그마치 21.5%가 감소함으로써 삼림파괴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림 파괴에 있어 석유 개발의 직접적 영향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마존 삼림의 파괴는 석유개발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업개발에 의해 주로 발생했다. 특히 대두와 목축업의 확대는 아마존 삼림 파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CEPAL의 한 비교연구에 따

가스 프로젝트의 주도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 인해 역시 그들이 주도하는 1AB블록과 8블록을 연결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르면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등에서 목축업의 성장이 숲 면적의 감소와 정확히 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Naciones Unidas 2010, 93).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1960년대 중반 이래 정부의 허가에 따라 석유회사들이 차지한 땅은 2,000-5,000헥타르 정도이다. 최근 위성사진으로 평가해 볼 때 이들 땅 중에 681헥타르가 석유생산 기지나 다른 생산의 하부구조로 개발되었고, 3,734헥타르가 생산기지에 접근도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4,415헥타르는 초기 전체 탐사 예정 지역(442,936헥타르)의 불과 1%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정부 지원의 약 2,000개 농업 정착지는 전체의 약 54.4%인 240,888헥타르의 삼림을 파괴했다(Southgate *et al.* 2009).

물론 이런 사실이 아마존 삼림 파괴에 있어 석유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앞선 언급한 것처럼 석유개발로 인한 접근로의 건설이 이러한 아마존에서의 농목축업 확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삼림파괴가 가장 심각한 에콰도르 아마존의 북부와 중부에서 광범위한 삼림파괴가 대부분 석유생산 접근로를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Bilsborrow *et al.* 2004, 635-647).

한편 아마존에서 석유개발은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쉘브론 텍사코(Chevron-Texaco)<sup>10)</sup>의 수질오염과 그에 따른 소송은 아마존 서부 지역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텍사코는 1965년에서 1993년까지 에콰도르 북동부 아마존 지역의 라고아

10) 1964년 미국의 텍사코는 영국의 걸프(Gulf)사와 함께 50 대 50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콰도르 북동부 아마존 지역의 유전개발에 참여했다. 1974년에는 에콰도르 정부도 1972년에 설립한 국영석유회사 CEPE(현재 Petroecuador의 전신)를 통해 25% 지분 참여를 시작했다. 1977년에는 걸프사가 CEPE에 자사의 지분 모두를 매각했다. 그리고 1989년 국영석유회사 Petroecuador의 설립으로 인해 1990년에는 텍사코도 경영권을 Petroecuador에 넘겨주었다. 1993년에는 텍사코도 양허권 만료와 함께 철수했다. 그리고 2001년 텍사코가 같은 미국 석유회사 쉘브론에 인수됨에 따라 현재 소송 건은 쉘브론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리오(Lago Agrio: 현재 지명은 Nueva Loja)에서 석유를 개발했다. 그런데 석유생산 중에 지표면으로 방출되는 생산수(produced water: 1배럴 오일 생산에 7-10배럴 정도가 발생하는데, 오일, 유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를 당시 전통적 방식에 따라 자연증발을 위해 웅덩이 등에 방치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로 인해 생산수는 지하로 재주입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된다.) 아마존 원주민과 원고측 법률인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시기에 생산수로 인해 방출된 오일의 양이 1989년 알라스카 Exxon-Valdez 기름 유출사고 때 방출된 양의 거의 2배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강한 독성 물질의 방출은 지역의 수자원을 오염시킴으로써 암 발생, 장애아 출생, 피부나 호흡기 질병, 소아 백혈병 등의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Denvir and Riofrancos 2008).

이렇게 석유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은 원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에콰도르 남동쪽의 블록 23과 24에 거주하는 슈아르, 아츄아르, 키츠와 족들의 암과 그 외 질병의 발생률이 최근 높아진 것은 이 지역의 석유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인 밀림의 오염된 강에서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고,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에게 수질 오염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Amazon Watch).

또한 석유 개발이나 접근 도로의 건설로 인한 외지인들의 이주 또한 원주민들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자발적 고립 상태에서 살아가던 원주민들은 외지의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 자발적 고립 상태의 원주민들이 외지인과 접촉한 이후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은 급증했다. 한 예로 페루 아마존의 쿠가파코리나후아 보호구역(Kugapakori Nahua Reserve)에서는 1980년대 중반 영국 셸(Shell)사의 가스 탐사로 유발된 외지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면역성이 없는 나후아족의 42%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Napolitano and Ryan 2007).

그밖에도 석유개발과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원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가파른 언덕 지역에 건설된 페루 카미세아 가스관<sup>11)</sup>

은 토양의 침식과 산사태 등을 일으킴으로써 그 지역의 강과 호수에 물고기를 사라지게 했다.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을 차단시킴으로써 특히 어린이들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야기했다(WWF-Peru).

## IV. 환경문제와 사회 갈등

### 1. 에콰도르: 민중 생태주의와 통치성의 위기

아마존 서부 지역 국가 중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에콰도르이다. 석유산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석유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통치성의 위기를 야기하기도 했다.

에콰도르에서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최초로 크게 부각된 것은 1986년 ConocoPhillips 사의 야수니 국립공원지역 개발과 관련해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마존 삼림의 파괴에 있어 석유자원의 개발이 미친 영향이 농업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 ConocoPhillips가 야수니 국립공원 원시림 지역의 우아오라니(Huorani) 족이 살고 있는 16블록의 탐사를 위해 에콰도르 정부와 협약을 맺었을 때, 환경행동(Acción Ecológica), 나투라 재단(Fundación Natura), CERDAVI와 같은 풀뿌리 환경 조직들은 이 지역의 석유 개발에 반대하는 반 ConocoPhillips 동맹을 형성했다. 그들은 또한 시에라 클럽(Sierra Club), 시에라 클럽 법적 방어 기

11) 카미세아 가스 프로젝트는 페루 남부 지역 아마존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서 약 40억 불의 재정수입과 또 그만큼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대형 가스개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카미세아 가스전이 위치하는 88구역과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오래전부터 자발적 고립 상태에서 살아온 이네(Yine), 난티(Nanti), 나우아(Nahua), 키리네리(Kirineri)와 같은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금(Sierra Club Legal Defense Fund), 천연자원 방어 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이하 NRDC), 밀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이하 RAN)와 같이 아마존 밀림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미국의 국제적 환경단체들과도 재빨리 동맹을 맺었다. 그에 따라 RAN은 이듬해 에콰도르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아 미국에서 ConocoPhillips의 아마존 개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초기에 이들은 주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동식물 보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전 접근 방법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제한적 틀 밖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곧 캠페인의 방향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큰 밀림 생태계의 문제로 확대했다.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환경보전의 문제를 인권보호라는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미국의 숲과 달리 아마존의 열대우림에는 사람이 거주한다. 따라서 그의 파괴는 원숭이나 나무와 같은 동식물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를 끼친다. 원주민 공동체의 운명은 밀림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밀림의 파괴는 오랜 세월 그곳에 거주했던 원주민 공동체 삶의 파괴를 의미한다. 아마존에서 밀림을 파괴하는 것은 따라서 원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아마존 밀림에서 환경문제와 원주민 인권의 문제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Southgate 2009, 20-21).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원주민 민족성 동맹(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 la Amazonía Ecuatoriana, 이하 CONFENIAE)<sup>12)</sup>과 같은 원주민 단체들은 밀림을 단지 보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개발을 통해 그 이익을 원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엄격한 환경보전주의자들과 원주민 권리옹

12) CONFENIAE는 아마존 지역 다양한 원주민 운동의 통합체로서 1980년에 설립되었다. CONAIE가 CONFENIAE와 함께 안데스와 해안 지역의 원주민 운동까지 통합하는 전국적 조직이라면, CONFENIAE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들만의 통합 조직이다.

호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NRDC와 같은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유전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주변의 하천들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근에 있는 원주민 공동체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또한 매우 심각함을 주장하면서 ConocoPhillips의 유전개발 취소를 위한 압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1991년 ConocoPhillips는 결국 16블록의 개발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ConocoPhillips의 철수는 원주민운동그룹과 환경단체 연합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들은 아마존 밀림에서의 모든 개발에 반대하는 그룹들과 야수니 국립공원과 우아오라니(Huaorani) 보호구역 밖의 지역에서는 개발에 찬성하는 그룹들로 나뉘어졌다. 초기에 에콰도르의 환경그룹들은 원주민의 토지권이 나 생존권보다 환경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분열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은 원주민들의 권리를 삼림의 보호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기 시작했다(Hall 1993).

이러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의 환경운동 연합은 COICA(아마존 원주민 조직 조정기구)를 통해 워싱턴 소재의 국제적 NGO들과 접촉하여 브라질로부터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전체 아마존 유역에서의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동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설립된 아마존 연합(the Amazon Coalition, 현재는 the Amazon Alliance)은 그 후 아마존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원주민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다. 에콰도르에서 이들의 캠페인은 주로 외국인 석유회사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들 캠페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 개발은 아마존의 환경을 위협한다. 특히 하천의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둘째, 아마존의 석유 개발은 전통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던 원주민들의 생존경제와 문화를 파괴한다. 셋째, 석유 개발은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약탈한다. 넷째, 석유 개발은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사전 협의나 참여 없이 외국인 기업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었다(Southgate 2009, 22).

이러한 캠페인이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아마존에서 석유를 개발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들이 그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ConocoPhillips에 힘입은 환경단체들이 1993년 앞서 언급한 텍사코 사의 수질오염과 관련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었다.

텍사코 오염 배상 소송이 외적으로 외국 석유기업들의 에콰도르에서 석유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환경문제와 경제사회정의 문제를 연결하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아마존 방어동맹(Amazon Defense Coalition)은 이 지역 5개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여 쉘브론사와 현재 약 3만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텍사코가 저지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 지역 원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배상이 이 소송의 주목적이다. 이렇게 아마존 방어동맹은 단순히 환경보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활동을 원주민과 같은 빈민층의 경제적 사회적 정의투쟁과 연결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성격의 환경운동은 국제적 지원을 받아 환경보전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주류 환경운동과는 구별된다.<sup>13)</sup> 이것은 Denvir and Riofrancos(2008)가 기존의 보수적 환경운동과 구분하여 계급적 성격을 지닌 환경운동, 즉 ‘민중생태주의(ecologismo popular)’ 라고 부르는 새로운 환경

13) Bebbington(2009, 19)은 환경 관련 사회운동을 5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단순 환경보전주의자들로서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개발로 인한 종 다양성과 환경의 질 파괴에 있다. 둘째는 보다 급진적인 생태주의자들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주된 관심은 전자와 같으나 환경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해 직접 행동과 같은 보다 급진적 정치적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다. 셋째는 환경정의론자들로서 이들의 주된 관심은 환경보다는 인권과 사회정의이지만 개발의 비용과 이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자원 개발을 문제로 삼는다. 넷째는 소위 민중환경주의자들로서 자원개발이 원주민과 같은 빈곤층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는 그룹들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자원민족주의자들로서 개발 그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외국인 혹은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기본적으로 환경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세 개의 그룹은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항상 갈등이 있으나, 때로는 필요에 따라 서로 결합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운동의 탄생을 의미한다. 원주민운동이 환경운동과 연합하고 게다가 사회정의의 문제까지 결합함에 따라 원주민 운동은 에콰도르 정치에 있어 통치정의 위기를 야기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실제 2000년대에 있었던 쿠데타와 대통령의 축출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격변의 뒤에는 강력한 원주민 운동이 있었다.

한편 에콰도르의 환경갈등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72년~1992년 텍사코 시기부터 에콰도르의 아마존 북부 지역은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인 Petroecuador가 운영을 맡으면서 이 지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해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Fontaine(2005b, 35-46)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의 정도와 함께 오염과 관련된 갈등 조정의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지역의 환경오염의 정도는 폐수 웅덩이의 존재, 기름 유출의 빈도, 유출된 원유의 양, 회수되지 않은 원유의 양이 네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에 따라 결정된다.<sup>14)</sup> 한편 오염과 관련된 갈등 조정의 수준은 오염이나 동물의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배상협약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에콰도르 아마존 북부 지역은 환경오염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Petroecuador 내부의 공동체 관련 사무국이나 환경보호팀(Gerencia de Protección Ambiental: GPA)의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통한 적극적 갈등 조정 노력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고 결론짓는다.<sup>15)</sup>

반면 환경오염의 수준이 높고, 갈등 조정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14) 이는 아마존 지역에서 환경 갈등의 최대요인이 수질 오염 즉 상수원의 오염임을 말해 준다.

15) 물론 저자도 이러한 조정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배상과 같은 응급조치성 처방이 아닌 원주민과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Fontaine 2005b, 45).

에서의 갈등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현재 Conocophillips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에콰도르 아마존 남동부 지역의 블록 23과 24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지역은 에콰도르에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하지만 국영기업에 의한 개발이 아마존의 환경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외국인 기업이 떠난 자리에 에콰도르의 국영석유회사인 Petroecuador와 또 다른 외국인 회사(이번엔 외국인 국영석유회사)가 들어왔다. ConocoPhillips에 의한 아마존 개발에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단체들 중 일부는 야수니 국립공원 인근에서 Petroecuador에 의한 석유탐사는 사실상 묵과했다(Kennedy 1992).

반면 외국인 민간석유회사들은 최근에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오히려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에서 석유개발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국기업들에 의해 야기되기보다는 오히려 채무와 빈곤과 인구증가 등의 문제를 앓고 있는 에콰도르 정부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환경적으로 더 무책임한 운영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전술적으로 환경단체들이 에콰도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외국인 기업들을 문제로 삼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마존 석유개발에 있어 한층 높아진 환경 기준과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책임 있는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개발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국영석유회사들이 이들보다 환경문제에 있어 보다 더 낡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최근 코레아 정부는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새로운 광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코레아 정부는 사회환경운동조직들을 배제한 채 다국적 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코레아는 석유개발로 인한 이익이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환경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 유아적 좌파, 낭만적 생태주의자”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El Comercio 2009). 게다가 때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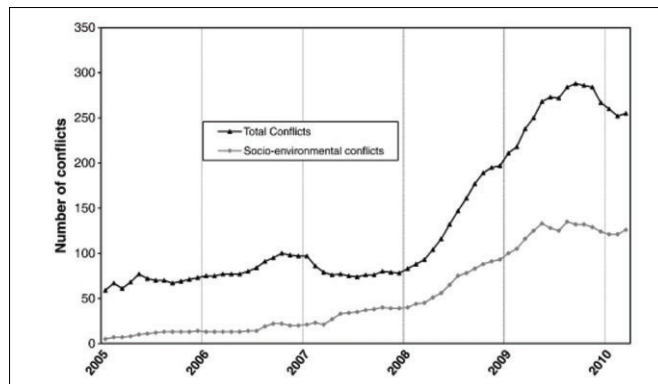


이러한 관계로 인해 CONAIE의 최근 투쟁 방향은 환경문제와 원주민의 권리문제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CONAIE는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거주 지역 토지에 대한 집합적 소유권 인정, 거주 지역의 종 다양성 보전, 거주 지역 내의 재생자원 사용권 인정, 거주 지역의 비재생 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해 원주민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성 등 환경 관련 문제를 입법 제안하고 있다. CONAIE의 강경노선으로의 선회로 꼬레아 정부 들어 잠시 소강상태였던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2. 페루: 사회갈등의 주가 된 환경갈등

페루에서 석유개발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에콰도르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강도는 결코 보다 더 작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페루에서 사회갈등의 역사는 매우 뿌리가 깊다. 그러나 사회갈등이 자원개발과 환경오염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04년 카미세아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페루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림 IV-1>에서 보듯이 국민보호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환경적 갈



〈그림 IV-1〉 페루 사회환경 갈등의 진전

자료: Defensoría del Pueblo 2005-2009.





다가 개발로 인한 수익의 배분을 둘러싼 지역정부 간의 갈등도 적지 않다. 즉 석유개발로 인한 수익이 생산 지역에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에도 배분되어야 하며, 개발을 위해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은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페루에서 광산업이나 석유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첫째는 이들 개발 회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존재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러한 기업들이 산출하는 수익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다. 그중 최근에는 수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지배적이 되고 있다. 즉 개발이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 갈등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Monge 2008, 134).

이와 같이 페루의 사회환경적 갈등은 그를 야기하는 행위자 간의 극단적인 문화적 차이, 비대칭적 결정권,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게다가 원주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또한 원주민의 과거와 최근의 투쟁 전력, 신교의 전파 수준, 군 복무 경험, 원주민 공동체의 석유회사 의존도, 국가 기관이나 다른 외부 기관의 부재, 국가기관의 감사 능력의 부족, 국가의 민주화 수준, 환경관련 입법 정도, 원주민 보호 관련 법의 존재, 지역의 고립도, 원주민 조직의 경제력, NGO에 의한 외부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환경 갈등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Otra-Martínez and Finer 2010, 212).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투자자들 편에 서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마존지역 개발과 관련된 그의 입장은 원주민 소유 토지의 상당부분이 쓸모없이 버려지고 단지 소규모의 토지만이 농업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자원을 끌어들이어 아마존지역을 자원개발이나 조림 숲, 농업에너지(agrofuel) 생산을 위한 보다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개발 전략에 대한 원주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2009년 북부 페루 바구아에서 있었던 도



기된 환경적 문제를 다룰 장기적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석유기업들의 후견인적 대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정치적 행태를 강화했다.<sup>17)</sup>

국영석유회사 Petroecuador는 Texaco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갈등을 매년 수백 건 이상 직면해야 했다. 이것은 Petroecuador도 석유개발 시 지역 공동체 주민의 구조적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석유산업으로 인한 환경 갈등의 심화로 인해 Petroecuador는 최근 단순한 환경 완화 정책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석유개발 지역의 공동체 발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아마존 유역에서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석유생산 외에도 그곳 공동체를 위한 교육, 보건, 하부구조까지도 책임지는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기관인 국가환경보호국(Dirección Nacional de Protección Ambiental: Dinapa)이 에너지광산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산하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환경문제 접근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환경법에 따라 석유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 또 다른 한편으로 석유산업을 촉진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에콰도르의 석유개발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데에는 바로 이런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국가 주도 하의 환경 문제 접근이 결

17) 에콰도르에서 개발 양허권을 가진 다국적 석유기업들은 최근 국가 통제가 강화되기 이전 국가에 로열티로 수익의 12.5-18.5%를 지불했다. 그리고 증가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부터는 환경세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환경세는 수출하는 석유 일 배럴당 50센트가 될 때까지 매년 5센트씩 늘려가기로 결정했다. 2005년 환경세는 50센트에 도달했고, 그로 인해 에콰도르는 1억 2천만 달러를 환경세로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원주민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가 지역 권력자들의 후견주의(clientelismo)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환경세는 지역의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만 살찌우고, 실제 피해자인 원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었다(Ortiz-T 2005, 55-56).

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페루와 에콰도르 정부는 환경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여 나름대로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업에 의존하는 이 지역 경제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들은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있어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소위 급진 좌파 정부들조차 수사적으로는 친환경적 제스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책이 항상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2007년 11월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은 아마존 지역 마을인 다유마(Dayuma)에서 석유 개발에 반대해 발생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유전 탐사와 개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된 이 지역 주민들은 코레아 정부의 하부구조 개선 약속을 믿었으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자 유전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코레아 정부는 그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를 두고 많은 사회 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 심지어 코레아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원들까지도 “코레아 정부의 변화 약속이 석유의 이익에 의해 희석되었다”고 평가했다(Denvir and Riofrancos 2008).

코레아는 이러한 유전 개발이 과거처럼 미국이나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개도국인 브라질이나 중국 등과 계약을 맺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많은 에콰도르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관계가 석유산업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원주민과 같은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석유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브라질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 회사인 옥시덴탈(Occidental) 사에서 브라질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사로 석유개발의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중 다양성이 뛰어나다고 주장되며,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온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살고 있는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야수니 국립공원(Yasuni National Park)에서의 환경적 갈등에 대한 코레아 정부의 대응은 환경 문제에 있어 코레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야수니 국립공원의 석유 개발은 과거 20년 동안 항상 에콰도르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이 지역 원주민들과 환경주의자들은 야수니 국립공원의 모든 천연자원의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코레아 정부는 겉으로는 환경 보호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하며, 우아오라니(Huaorani)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31블록을 야수니 국립공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편법을 통해 이 지역의 석유 개발권을 브라질의 Petrobras에 넘겨 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석유로부터의 수입이 국가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넘는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에서 정부가 환경 문제로 인해 석유 개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코레아는 야수니 국립공원에서 석유를 개발을 중단한다면, 그 대가로 그의 개발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의 약 반에 해당하는 금액, 즉 십 년 동안 매년 3억 5,000만 불씩을 “환경채무”의 형태로 개발에 반대하는 선진국들과 그의 민간단체들이 에콰도르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코레아 정부는 친환경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과 삼림파괴를 유발하는 석유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즉 천연자원에 대해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적 수사를 내세우는 소위 좌파인 코레아 정부도 자원개발의 현실적 필요성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원 개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의 정부가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한계이다.

한편 페루는 툴레도 정부(2001-2006)에 들어 석유와 가스 개발을 본격화했다. 총 39개의 석유개발 계약이 툴레도 정부 후반기에 로열티 인하 조치와 함께 이루어졌다. 로열티의 인하로 페루의 국영 석유회사인 Perupetro뿐만 아

나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Occidental, ConocoPhillips, Barrett, Harken, Hunt 등)과, 아르헨티나의 PlusPetrol, 브라질의 Petrobras, 스페인의 Repsol, 중국의 Sipet와 같은 대형석유회사들이 페루의 석유개발에 뛰어들게 되었다. 페루에서는 2003년부터 최근 7년 동안 석유개발을 위한 양허권이 주어진 지역이 7배로 증가했다.

그로 인한 원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양허권 계약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알란 가르시아<sup>18)</sup>정부는 석유개발에 저항하는 원주민그룹들을 경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야만인(confused savages)” 등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좌파 게릴라 그룹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와 비교하면서 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석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알란 가르시아는 환경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자원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빈곤의 지속을 의미할 뿐임으로 자원개발에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은 평등을 위해 발전을 포기하는 19세기의 공산주의, 20세기의 보호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아마존은 페루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잠재적 자원임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원주민이나 소규모 메스티소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잠재된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García Pérez 2007a; 2007b).

결론적으로 페루와 에콰도르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이 지역의 환경문제와 원주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치적 의지, 능력, 수단,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급진좌파로 분류되는 에콰도르의 꼬레아 정부의 자원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페루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환경과 관련된 최소한의 법 규정만을 따를 뿐 앞서 제기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18) 1980년대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APRA 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알란 가르시아는 외채 이자를 수출액의 10% 내에서만 지불하겠다는 급진적 선언으로 서구와 충돌하면서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가르시아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석유산업 개발을 위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지가 역시 없다. 최근 안데스 서부지역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베네수엘라의 PDVSA나 브라질의 Petrobras와 같은 국영기업이 환경문제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1차 상품 생산에 따른 착취와 강탈의 역사였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Galeano 1986)가 말하는 “대지의 부의 결과로서 인간의 빈곤”이라는 테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다시 1차 상품 경제 즉 자원채굴의존경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들은 ‘자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실현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믿는다. 그러나 자원개발로 인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정책에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원개발로 인한 인간적 정치적 비용은 매우 크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은 아마존 서부 지역 정치적 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 VI. 결론

최근 세계경제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까지 그의 개발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은 지역의 특성상 심각한 생태계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단순히 아마존의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수 천 년 전부터 그곳에서 고립적 삶을 살아온 원주민들의 삶까지 붕괴시킨다. 페루 아마존 지역 개발구역의 상당부분은 고립적 원주민을 위한 보호구역, 원주민 공동체 소유지, 환경보전 지역과 중복된다. 에콰도르에서는 심지어 몇 년 전까지 국립공원의 개발이 허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개발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 그러나 석유개발로 인한 간접적 환경파괴의 효과도 결코 적지 않다. 석

유생산지설에의 접근 도로나 송유관을 따라 난 길을 통해 원시림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목축이나 수출 작물의 경작이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삼림파괴 등 수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에서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에 대한 피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 최근 페루와 에콰도르의 사회적 갈등 특히 원주민의 투쟁이 점차 생태주의 혹은 사회환경적 성격을 띠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페루에서 사회환경적 갈등은 전체 사회갈등의 거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고,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의 생태주의적 투쟁은 국가 통치성의 위기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데올로기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모두 개발에 호의적 태도를 보인다. 비록 페루와 에콰도르 정부가 사회적 갈등의 심화에 직면하여 나름대로 환경친화적 정책들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광산업이 경제의 주된 동력인 이들 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원주민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한다. 석유산업의 국유화와 같은 조치도 환경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은 않았다. 결국 페루와 에콰도르 정부는 이 지역의 환경문제와 원주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정치적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석유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레스터 브라운(2008), 『플랜 B 3.0』, 환경재단 도요새.  
 앤서니 기든스(2003),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전경수(1997), 『환경친화의 인류학』, 일조각.  
 Amazon Watch, “Mega Projects in the Amazon,” <http://www.amazonwatch.org>.  
 Bebbington, Anthony(2009), “The New Extraction: Rewriting the Political Ecology of the Ande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September/



- October, pp. 12-20.
- Benavides, M.(2009), "Amazonía 2009. Áreas protegidas y territorios indígenas. Notas para el mapa," [http://raisg.socioambiental.org/files/Amazonia\\_Peruana.pdf](http://raisg.socioambiental.org/files/Amazonia_Peruana.pdf).
- Bilsborrow R. E. *et al.*(2004), "Changes in Population and Land Use Over Time in the Ecuadorian Amazon," *Acta Amazónica*, No. 34, pp. 635-637.
- CEPAL(2008),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EPAL(2009),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ollins, D.(2009), "Peru polarised after deadly clashes," *BBC News*, 10 June, <http://news.bbc.co.uk/2/hi/americas/8093729.stm>2009.
- Defensoría del Pueblo(2005-2009), *Reporte de Conflictos Sociales. Adjuntía para la Prevención de Conflictos Sociales y la Gobernabilidad*, Lima: Defensoría del Pueblo.
- Defensoría del Pueblo(2006), *Informe Defensoría No. 101: Pueblos indígenas en situación de aislamiento y contacto inicial*, Lima: Defensoría del Pueblo.
- Denvir, Daniel and Thea Riofrancos(2008), "How green is the Latin American left? A Look at Ecuador, Venezuela and Bolivia," <http://upsidedownworld.org/main/index2>.
- El Comercio(2009), "Correa pone de ejemplo a Canadá para defender beneficios de minería," *El Comercio(Quito)*, 21 de febrero.
- Finer, Matt *et al.*(2008), "Oil and Gas Projects in the Western Amazon: Threats to Wilderness, Biodiversity, and Indigenous Peoples," *PLoS ONE*, Vol. 3, No. 8, pp. 1-9.
- Fontaine, Guillaume(2005a), "Conflictos por petróleo y gas natural en la Amazonía," *Í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úm. 21, pp. 9-10.
- Fontaine, Guillaume(2005b), "Microconflictos ambientales y crisis de gobernabilidad en la Amazonía ecuatoriana," *Í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úm. 21, pp. 35-46.
- Galeano, Eduardo(1986), *Las Venas Abiertas de América Latina*, 47a. ed.,

- México: Siglo XXI.
- García Pérez, Alan(2007), “El Síndrome del Perro del Hortelano,” *El Comercio(Lima)*, 28 de octubre.
- García Pérez, Alan(2007b), “Receta para Acabar con el Perro del Hortelano,” *El Comercio(Lima)*, 25 de noviembre.
- Gavaldá Palacín, Marc(2005), “Los conflictos ambientales del gas boliviano,” *Í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úm. 21, pp. 57-66.
- Greene, Shane(2006), “Getting over the Andes: The geo-eco-politics of indigenous movements in Peru’s twenty-first century Inca empir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No. 38, pp. 327-354.
- Hall, Susan E. A.(1993), *Block 16: Conoco’s ‘Green’ Oil Strategy*, Cambridge: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9-394-001.
- Hance, Jeremy(2010), “More of the Amazon opened to oil development,” *mongabay.com*, May 24.
- Kennedy Jr., Robert F.(1992), “Driving out Conoco disservice to rain forests,” *Washington Post*, August 24.
- IBC(2009), *Mapa Amazonía Peruana 2009*, Lima: Instituto del Bien Común.
- Langer, Erick D. and Elena Muñoz(2003), *Contemporary Indigenous movements in Latin America*,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Inc.
- Monge, Carlos *et al.*(2008), “Recursos naturales y conflictos sociales en el Perú del siglo XXI,” *Perú Hoy. Territorio y naturaleza. Desarrollo en armonía*, Núm. 14, pp. 117-141.
- Naciones Unidas(2010), *Objetivos de Desarrollo del Milenio. Avances en la Sostenibilidad Ambiental del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Napolitano, Dora A. and Aliya S. S. Ryan(2007), “The dilemma of contact: voluntary isolation and the impacts of gas exploitation on health and rights in the Kugapakori Nahua reserve, Peruvian Amazon,” *Environmental Reservation Letter*, Vol. 2, No. 4, pp. 1-12.
- Maybury-Lewis, David(2002), *The Politics of Ethnicity: Indigenous Peoples in Latin American State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Ortiz-T, Pablo(2005), “Protestas Locales Amazónicas y Modelo Petrolero en

- Ecuador,” *OSAL*, Año VI, Núm. 17, mayo-agosto, pp. 53-60.
- Otra-Matínez, Martí and Matt Finer(2010), “Oil frontiers and indigenous resistance in the Peruvian Amazon,” *Ecological Economics*, No. 70, pp. 207-218.
- Postero, Nancy Grey and Leon Zamosc(2004), *The Struggle for Indigenous Rights in Latin America*, Portland, Oregon: Sussex Academic Press.
- Rivas Toledo, Alex(2005), “Gobernabilidad democrática, conflictos socioambientales y asistencialismo,” *Í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úm. 22, mayo, pp. 101-106.
- Soria, Carlos(2005), “Camisea: ¿por qué cuesta tanto el gas barato?” *Í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úm. 21, pp. 47-55.
- Southgate, Douglas *et al.*(2009), “Oil Development, Deforestation, and Indigenous Populations in the Ecuadorian Amazon,” Presented to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in Rio de Janeiro, Brazil, June 11-14, pp. 1-38.
- WWF-Canon and Jeffrey A. Sayer(2010), “Oil exploration site near Yasuni National Park. Ecuador,” <http://wwf.panda.org>.
- WWF-Peru(2010), “Oil and gas extraction in the Amazon: Camisea,” <http://wwf.panda.org>.

## 김기현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인문외국어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drkhkim@sunmoon.ac.kr

논문투고일: 2011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29일